

2015년 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5.2.26(목) 16:00~17:0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심층성·정확성 확보하고 균형있게 보도해야

- 2일 '출발640' 금의환향 태극전사에게 쏟아진 '꽃잎 세레' 내용에서 슈틸리케 감독의 리더십과 이번 아시안컵에서 들어난 우리 대표팀의 수비의 잦은 실수, 낮은 골 점유율 등 풀어야 할 숙제 그리고 한국 축구의 당면 문제인 K리그 침체, 우리 축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국민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 있음(성낙용 위원)
- 10일 '뉴스와이12' 지난해 세수 11조원 구멍...나라 살림 최악 관련기사에서 지난해 세수결손이 무려 11조원으로 사상 최대이고 또한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이어졌으며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단순 팩트 위주의 내용을 전했는데 시청자입장에서는 세수결손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특히 수입이 지출보다 줄게 되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지출을 줄이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이는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소득이 줄게 되어 이는 바로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각에서는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런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언급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성낙용 위원)
- 8일 '명품리포트 맥'은 20분이라는 방송 시간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이슈를 3가지나 전달하다보니 기자의 가감 없는 시각으로 깊이 있는 보도를 하겠다는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개념을 설명하는 정도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음. 꼭 3가지 이슈를 분야별로 다 전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두 가지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임(이헌규 위원)
- '명품 리포트 맥'은 일주일간 있었던 주요 뉴스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정리해 전문가 대신 기자가 요약해 주는데 신선하게 다가왔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 '여의도 족집게' : 정치 뉴스를 전달하면서 정치인들 간의 갈등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한다고 생각함. 갈등 부각보다는 중요한 정치 이슈를 약간은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음. '기업 기상도' : 기업의 현황을 맑음과 흐림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점은 좋지만 기업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가볍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좀 더 종합적인 해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음. '현장 IN' : 현장 IN은 깊이 있는 보도라기보다는, 심하

- 게 표현하면 가십 수준의 뉴스를 정리하는 정도라고 생각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으면 좋겠음(최현철 위원)
- 우리나라 정치 뉴스의 문제 중의 하나가 추측보도라고 생각함. 특히 정치권,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뉴스는 그 정도가 지나침. 기자는 인사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하려면 추측성 보도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과연 인사에 관련하여 추측성 보도가 필요한지 검토해 봐야 함. 인사 결정이 난 다음에 보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추측성 보도는 결국 뉴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음(최현철 위원)
 - 13일 휘발유가격 인상과 관련 '내릴 땐 짙끔', '올릴 땐 훌쩍' 콧물 같은 기름값이라는 제목하에 국제원유가가 110달러에서 40달러로 절반이상 내렸지만 국내 휘발유가격은 1,800원에서 1,400원으로 20% 하락에 그쳤다고 비판했는데, 정유사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할 만한 보도였음. 기사말미에 정유사들은 이런 사태가 세금문제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는 짧은 멘트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정유사가 기름값을 잘 내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기사였음. 휘발유 가격 인하문제가 세금과 결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보도였음(이용우 위원)
 - 21일 국민연금 관련 내용에서 국민연금의 지분확대는 결국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민간기업 특유의 신속하고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관련한 논란이 수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확대와 의결권행사 증가가 바람직한 현상인지, 해외에서도 과연 이와 같이(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제외)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는 경우가 보편적인지, 이에 따른 장단점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찬반 양측의 의견을 균형감있게 분석하는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한 듯함(이용우 위원)
 - 22일 '일한 만큼 못 번다. 한국 OECD 국가 중 최하위' 보도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OECD 32개국 중 24위였다는데 과연 '최하위'인지 짚어볼 일임.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다면서 중간소득의 2/3도 못 버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1/4에 달한다고 했는데, 정작 이 비율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적어도 '최하위', '극심한 빈부격차', '노동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것도 모자라 불공평하기까지 한 현실' 등 상당히 감정적인 표현까지 쓴 내용이 타당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심도있는 분석이나 사실확인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됨(이용우 위원)
 - 22일 "떡튀논란 론스타 '적반하장'-4조원 물어내라"보도를 보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임. 일단 제목에서부터 '적반하장' 등의 표현에서 '선악개념'을 이입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문제, 특히 치열한 논리싸움의 장인 글로벌 경제이슈를 다소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을 주었음. 복잡한 경제현상을 보도할 때 자칫 감정을 이입하여 보도하다 보면 상황을 왜곡하거나 건전한 비

판기능을 벗어나는 수가 있음(이용우 위원)

- 16일 2시40분 야당의 총리인준 투표 참여 여부 관련하여 타사는 이미 투표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연합뉴스TV는 유보적으로 의원들이 이동 중이라는 설명을 계속함. 약 2분후 표결 참여 자막이 나갔는데 취재진과 진행자간의 유기적 연결이 상대적으로 약한 느낌을 줌. 타방송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소개할 때 패널의 전망만이 지속되었는데 정보 확인의 신중함은 인정하지만 상황 전달력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음(양승찬 위원)
- 분쟁관련 보도를 할 때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내면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김용주 위원)
- 16일 국회에서의 총리 인준 반대, 찬성 의사진행발언을 전달하면서 연합뉴스TV는 반대 의사진행발언만 전달하고 중단함. 타사에서는 두 입장을 다 소개하여 균형을 맞춤. 편성상 광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중요한 사안을 균형있게 전달해야 하는 시점에 한쪽만 전달하고 광고를 내 보내 매우 무책임한 보도로 보임. 편성안 의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양승찬 위원)
- 16일 유커관련 보도에서 중국 관광객이 내수진작에 많은 도움을 주고 34만개 일자리창출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곧이어 유커는 그림의 떡이고 이대 등 일부지역은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관광객들을 피해 이동하는 바람에 상권이 오히려 죽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음. 앞뒤 보도내용 모두가 일리있는 내용이고 각각의 취지도 이해가 되나, 이와 같이 상반된 내용은 하나로 묶어서 유커 증가의 명과 암을 함께 균형 잡히게 다루어 주었으면 보다 매끄럽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음(이용우 위원)

▲ 화면구성 및 부적합 표현, 자막 등 개선필요

- 25일 세종 '엽총 난사' 관련 뉴스에서 '엽총의 살상력'과 같이 사건과는 크게 상관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제공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화면에는 총알이 관통된 유리창, 차량 근처에 피가 묻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뉴스가 너무 흥미위주 또는 자극적으로 꾸며진 것 같아 보임(김연화 부위원장)
- 25일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내용에서 흡연경고그림과 관련하여 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라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는데, 말로만 설명하기 보다는 그래픽을 이용하여 개정 전과 후의 담뱃갑 그림 예시를 제시하면 시청자가 개정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김연화 부위원장)
- 25일 '한류스타 왜이래!...줄줄이 이미지 실추' 내용에서 연예인 세 명의 사례를 들며 한류스타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는

'기사를 만들기 위한 기사'로 보여짐. 셋 모두 여성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은 맞지만 세부적 내용이 달라 하나의 사건으로 묶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들 외에도 연예계에는 사건사고가 많은 편임. 한류스타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한류스타로 한정짓지 않고 연예계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기사를 쓰는 것이 나아 보임(김연화 부위원장)

- 25일 '국정원 "터키 실종 김군 IS 가담 확인...훈련지에 있어' 내용에서 터키 실종 IS 김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뉴스가 갑자기 북한 김정은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되어 혼란을 줌. 국정원이 김군과 김정은에 관한 것을 둘 다 보도했기 때문에 하나의 기사로 엮은 것 같은데, 내용이 갑작스럽게 바뀌면 시청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하나의 내용이 끝나면 적당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좋을 듯함. 또한 김정은 내용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도 화면 왼쪽 상단 자막에는 "터키 간 김군 IS서 훈련 중"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어 뉴스 내용과 자막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니 좀 더 섬세한 화면 구성을 해 주면 좋을 것(김연화 부위원장)
- 21일 '뉴스 1번지' 명절이 더 바쁜 사람들 관련 기사에서 소방관(서울종로소방서), 경찰(서울면목동), 한국도로공사(서울요금소) 근무요원을 취재했는데 인터뷰 대상에 대한 자막에 아주 잠깐 동안 처리되고 사라져 해당 뉴스 꼭지에 대한 효과가 떨어져 보였음.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많은 국민들과는 달리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살리려고 했다면 효과적이고 시각적인 느낌이 두드러져야 했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음(성낙용 위원)
- 1월3 1일 뺑소니 관련 보도시 골목길 취객을 확인 후 승용차가 그대로 돌진하는 영상, 1일 이별 양심 품고 애인 차량으로 돌진하는 영상이 너무 리얼하게 방송되어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줄 정도였음. CCTV, 블랙박스 등으로 사고현장을 담아내서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도 방송의 한 역할이지만 도를 넘어선 자극적이고 불쾌할 정도라면 모자이크 등을 통해 수위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용진 위원)
- 11일 22시 '뉴스리뷰' 일기예보를 진행하는데 기상캐스터가 화면에 나오기 전 음성은 전달되고 캐스터가 절반만 화면에 잡혀 보기 흉한 영상이 되었는데 초보적 방송실수로 연합뉴스TV의 신뢰를 저하시키지 말아야 될 것 같았음(이용진 위원)
- 25일 '박 대통령 취임 2주년...국정동력 재충전할까' 내용에서 소제목으로 '박 대통령 취임 2주년...국정 '드라이브'라는 문구를 선정했는데, 여기서 '드라이브'가 정확히 어떤 뜻에서 쓰인 단어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니만큼 좀 더 직관적이고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해주는 것이 적절함. 또한 대통령 지지율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설문 조사가 전화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으로 이루어졌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조사 방식은 설문 응답자가 주부 등 특정 연령, 직업군에 치중될 수 있으

니 자료 사용시 주의해야 함(이용진 위원)

- 25일 '한중 FTA 가서명...역대 최대품목 원산지 인정' 내용에서 한중 FTA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을 설명한 기사인데, 너무 내용이 빨리 지나가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었음. 주요 사항이나 FTA로 인해 변화하는 것들을 따로 정리하여 보여주면 이해하기 쉬울 것. 또한 농수산 분야에 대해 설명할 때 화면은 조선, 철강 등 중화학 산업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 화면과 설명이 일치하지 않았음. 또, 기사에서 '양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무역 등에 관심이 없는 시청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음에 유의하고 사용하면 좋을 듯(이용진 위원)
- 8일 일요일 이슈진단 오후 4시경 대담 방송시 오른쪽 하단에 대담자 모습을 전달하면서 전체 화면 하단 자막에 대담자 이름과 자막내용을 담음. 자막 내용이 '청와대 소폭 개각 예정' 이라고 나갔는데 마치 대담자가 말하는 것처럼 처리되어 시청하는 입장에서 누구의 이야기인지 애매하게 전달됨. 자막 처리에 주의가 필요함(양승찬 위원)
- 11일 '맹찬형의 사사터치' 뉴스속보 광대경교수 동국대경찰행정학과, 승용차로 도주했다가 공주 금강변서 숨진채 발견 이라는 자막은 시청자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 광대경교수를 사건 당사자로 오인 할 수 있음. 자막 처리에 주의기 필요함(김용주 위원)
- 25일 '간통죄로 처벌받은 10만명...재심청구 대란 오나?'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나면 1953년 법이 만들어진 뒤 간통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줄잡아 10만여 명에 이르게 됨.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위헌 판결을 내렸던 2008년 10월 이후 유죄가 확정된 수천 명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전과도 없앨 수 있다는 보도임. 그런데 자막만 보면 간통죄로 처벌받은 10만명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할 수 있음. 자막과 보도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오해할 수 있으므로 자막에 신중을 기해야 함(김용주 위원)
- 21일 하단 자막(스크롤) 스포츠 뉴스에서 프로농구 전적을 보도하는데 다른 팀들은 KCC, SK 등으로 보도를 하는데 'KT'는 한글 '케이티'로 보도되는데 공식 명칭은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이용진 위원)

▲ 프로그램기획 및 제작·편성 의견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사람들의 자살사건이 자주 보도되는데, 예방을 위해 자살사건이 늘어나는 원인 등을 심층분석하여 자살예방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제정요망(김용주 위원)
- 최근 IS 관련 사건보도가 많은데 주로 인질 납치, 사형, 화형 등의 자극적인 내용과 자막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 최근 한국 청소년이 IS에 가입하기 위해 터키로 떠난 사건이나 일본인 인질이 사형되는 참사가 일어나는 등 아시아권도 IS

의 위협에 크게 노출되고 있음. 이런 시점에서는 뉴스의 사건 보도도 중요하지만 IS라는 무장단체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로 IS가 미화되는 경우가 문제시 되고 있음.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도채널로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헌규 위원)

-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전국에서 개최되는 과학관련 행사 등을 취재, 보도하고 미리 기획 하여 과학 관련 프로그램 방영을 제안함(이헌규 위원)
- 청소년과의 성관계 촬영 관련 아이템이 24일 저녁 7시 뉴스다이제스트에서 연이어 나옴. 시간대를 고려하여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지난 설 연휴 프로그램 가운데 '설 연휴 가족나들이 좋은날씨' 관련 내용에서 월드컵공원과 경복궁을 소개했음. 대부분 방송사들이 범하는 것이 교통, 날씨를 수도권에 집중해 방송을 함. 설명절의 경우 흩어져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연합뉴스TV는 전국의 시청자를 배려해서 서울의 명소 뿐 아니라 타 지역의 명소도 배려해 보는 기자의 관점이 필요하고 진행하는 앵커의 멘트라도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강대인 위원장)

▲ 긍정적 평가

- 21일 '뉴스15' 북한 서해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 발사 관련 이슈진단에서 북한 언론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 모습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NK지식인연대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여 이슈진단으로 분석하였는데 "북 : 신형미사일 지속개발, 북미사일 비 본토 겨냥/ 중 : '동평41' 전략화 압박/ 일 : 신흥무기강국 야심/ 군 : 미사일 개발 심혈" 등을 기본 주 이슈로 각국의 전략에 대한 분석과 전망, 무기 성능까지 자세히 짚었으며 또한 주변국의 경쟁적인 무기개발 등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망, 북한의 오판에 대비한 무기체계인 한국형 무기방어체계(KAMD)의 실효성 등을 짚어주어 좋았음(성낙용 위원)
- 일요일 오전 10시 경제기상도에서 한주간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전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좋음. 기자가 출연하여 분석적인 시도를 통해 주간 경제 이슈를 잘 전달해 줌(양승찬 위원)
- 뉴스와이 지방시대 클릭 전국은 지금에서 신문브리핑을 통해 지역 신문의 중요한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이슈를 전국적으로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다만 신문 기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료화면을 쓸 경우 관련있는 내용만 잘 선택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지난달 공정위, 국세청 등이 일단 부과하고 보자는 식으로 세금이나 과징금을 남발하다 보니 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시의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함. 영터리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인적,

물적인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국민들의 혈세까지 낭비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이용우 위원)

- 23일 '김민전 박상헌의 정정당당' 은 정치, 경제, 사회, 북한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각종 현안이나 이슈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음. 타 시사프로그램에 비해 객관적 접근으로 시청자들의 판단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패널 선정도 적절하였음. 특히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의 경우, 최근 사회 전반에서 빈번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상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해보는 취지가 돋보였음(이헌규 위원)
- '주류가 아니면 어때!'...독립출판의 반란 보도에서 독립영화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독립 출판이 있다는 사실을 연합뉴스TV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음. 문화 다양성을 알리고 새로운 출판영역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문화의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측면에서 신선한 보도였다고 평가함. 상업방송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영역이나 연합뉴스TV가 숨겨진 보석같은 뉴스를 찾아내서 심도있게 보도한 점에서 보도 채널의 역할에 부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함. 앞으로도 우리 문화속에서 감춰진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소개해 주시기를 기대함(최진영 위원)
- 21일 월드리포트 ' That's Why '방송된 몽골 '흙스굴' 얼음축제를 시청하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절절히 느끼고 감동받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음(이용진 위원)

▲ 채널명 관련 의견

- 뉴스Y보다 연합뉴스TV라는 사명을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방송의 아이덴티티를 찾았다는 점은 고무적임. 하지만 지상파 등 여타 방송사명에 비해 연합뉴스TV라는 사명이 지나치게 길다는 느낌 있어 '연합TV'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음, 좀 더 좋은 대안이 없을 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임(최진영 위원)
- 연합뉴스TV로 UI 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단계적으로 이전의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10일 총리 청문회 현장 보도를 보면 기자의 노트북이나 마이크에 모두 이전의 뉴스Y 로고가 강조되었는데 통일하여 정리하면 좋겠음(양승찬 위원)

▲ 기타 의견

- 수화방송과 관련하여 연합뉴스TV는 크로마키를 활용하여 수화통역사만(블루화면 없음) 화면 우측하단에 배치하여 방송내용을 농아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음. 이는 새로운 시도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방송화면과 수화통역사를 구분하는 선(에지선)이 없음으로 해서 방송화면과 수화통역사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때론 수화통역사를 방송내용 중의 한 인물로 인지할 수 있는 등

방송시청에 오히려 방해가 됨(성낙용 위원)

- '명품 리포트 맥의 언중유언'은 말 속에 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알맹이도 거의 없어 이해하기 어렵고 꼭 필요한 코너인지 고민이 필요함 (최현철 위원) - . (끝)